

# 야3당 “100% 연동형 · 의원수 330석”

### 선거제 개혁안 발표...“이달 중 충분히 합의 해낼 수 있어” “의원정수 늘리되 세비 감축...지역 대 비례, 2대 1 협의”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비교집단체 정당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1월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23일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330석 확대를 골자로 한 자체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야3당은 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여야가 앞서 합의한 '1월 내 선거제 합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광영, 평화당 정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3당은 각 정당이 정치개혁

사명을 새기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논의한다면 1월 중으로 충분히 합의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야3당의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각 정당이 특유의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갖고 선거법 개정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쟁점사항인 의원정수는 국

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지난날 5당 원내대표의 합의 정신에 따라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야3당은 이와 관련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반영해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의원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의 전체 예산은 동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의 경우 기존 정개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토대로 2대 1 또는 3대 1 범위에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330석을 기준으로 22대 110을 기준으로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들러 석패율제(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구제) 또는 이중등락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전국 단위 또는 권역별 실행 여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검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야3당은 이같은 개혁안을 발표할 뒤 "우리는 이러한 선거제 개혁 방향이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고, 동시에 여야의 초당적 합의를 이뤄낼 현실적 방안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민주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야3당은 "여당이 이제라도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자체적인 안을 내놓는 것은 의미있게 평가

한다"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5명의 원내대표 합의에 비해 대단히 후퇴했고 정치개혁의 방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제안한 세 가지 방안은 그 어느 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하다. 한 마디로 무늬만 연동형, 가짜 연동형"이라며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가만 고만한 것 같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일갈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여전히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의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 논의도 없이 그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에 "선거법 개정은 1월 말까지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온전히 도입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선회해야 한다"며 "복잡한 방식으로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현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당은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입각한 선거법 당론을 확정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계속해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 야3당은 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 5간담회실에서 열린 '북미 핵협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자유한국당 핵포럼 제9차 세미나에서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태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상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 한국당 당권 ‘눈치싸움’ 치열 김병준 출마설엔 모두 ‘견제’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자유한국당 전당 대회에 출마하는 당권 주자들이 레이스에 시동을 걸면서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대 출마 저율질을 두고 당권 주자들이 하나둘씩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무성 전 대표와 홍준표 전 대표 등이 출마 가능성 등을 열어놓으면서 주자들 사이에 눈치싸움은 더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상수·김진태 의원 등 한국당 당권 주자들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북미 핵협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핵포럼 세미나에 일제히 참석했다.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세미나 이후 기자회견과 만나 당대표 후보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김병준 비대위 원장을 향해 견제구를 던졌다. 오 전 시장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예상 가능하지 않은 행보"라고 김 위원장의 행보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비대위를 끝까지 책임지고 전당 대회가 무사하게 치러져서 한국당이 국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전당대회가 되도록 마무리를 잘하는 게 그분의 제1의 소인"이라며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는지 믿기지 않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황 전 총리가 연일 보수색채가 짙은 발언과 행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생각을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의 원칙은 보수대통합이 돼야 한다"며 "보수우파 가치를 신봉하는 분들, 다음 정권을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는 국민 입장에서 일단 한국당이 당내 통합을 이룬 다음 의견을 확장

해서 내년 총선에서 분열되지 않은 상태로 선거를 치러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이 비슷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황 전 총리는 김 위원장의 출마설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들려서 잘 보고 있다"면서 "본인이 지혜롭게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짧게 언급했다. 황 전 총리가 즉답을 피하면서도 지혜롭게 판단할 것을 당부한 점에서 사실상 거부감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안상수·김진태 의원의 출마선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나라가 잘 되길 위한 마음에서 노력하고 헌신하시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

이날 전당대회 출마표를 던진 안상수 의원은 김무성 의원·김병준 위원장의 출마설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어려운 당을 잘 관리했다. 저도 비대위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한 걸 보았을 때"라며 "다만 이번엔 출마하는 게 흔히 말하는 대로 심판이 선수로 뛰는 걸, 관중들이 감동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은 공정하다고 생각할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홍준표 전 대표에게 나오시라 이렇게 말했더니 지금 들쭉들쭉하는 것 같다. 이제 김병준 위원장도 그런 모양인데 그 분도 나오시라고 했더니 정말 나올 모양인가 보다"라며 "발린다고 될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축구 해설위원이 직접 선수로 뛰었을 때 제대로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인지 당원들이 판단할 것 같다"고 반감을 드러냈다.

## 여권, 손혜원 · 서영교에 쓴소리 잇따라... “자성 필요”

지도부가 사실상 묵인해온 손혜원·서영교 의원을 두고 여권 내 비판의 목소리가 하나둘 나오고 있다.

5선 중진인 이종걸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공직자로서 엄격한 이해충돌이 있어서의 예민한 문제를 다 지켰느냐 내 스스로 양심에 맞느냐를 좀 더 살피어야 한다"며 "저는 좀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로서 엄격한 자기관리·자기감시는 국민이 아무리 강하게 요청해도 받아들이야 한다"고 말한 뒤 "이전 엄정한 국민적 기준에 의해 어떤 기준으로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 민주당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내에서 손 의원의 행보는 '투기가 아닌 투자'라고 말하는 데 대해 국민적 기준이 중요하다고 일침을 가한 셈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국민 앞에 겸허해질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손 의원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되고 있어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하겠다"고 한 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국

민 앞에서 겸허해야겠다는 다짐을 함께 했으면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금태섭 의원은 지난 21일 MBC 프로그램에 출연해 "(손 의원이) 일반적으로 공직자 윤리라고 생각하

렸던 서 의원 재판 정략 의혹에 대해서도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사법개혁을 강조했던 민주당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한다는 지적이 일자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셈이다.

당내에서 사법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박주민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 의원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했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지적에 '사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에 대해 모든 절차가 다 끝났다고 말한 적도 없다"며 "조금만 더 지켜봐달라"고 추가 징계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해찬 대표 비서실장인 김성환 의원은 전날 BBS 라디오에 나와 "자법농단을 막고자 하는 정부나 우리 당의 노력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손혜원, 공직자 이해충돌 · 양심 살피어야”  
“서영교, 내로남불 안돼...해명 · 사과 필요”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Drawing 이호동

**광산구**